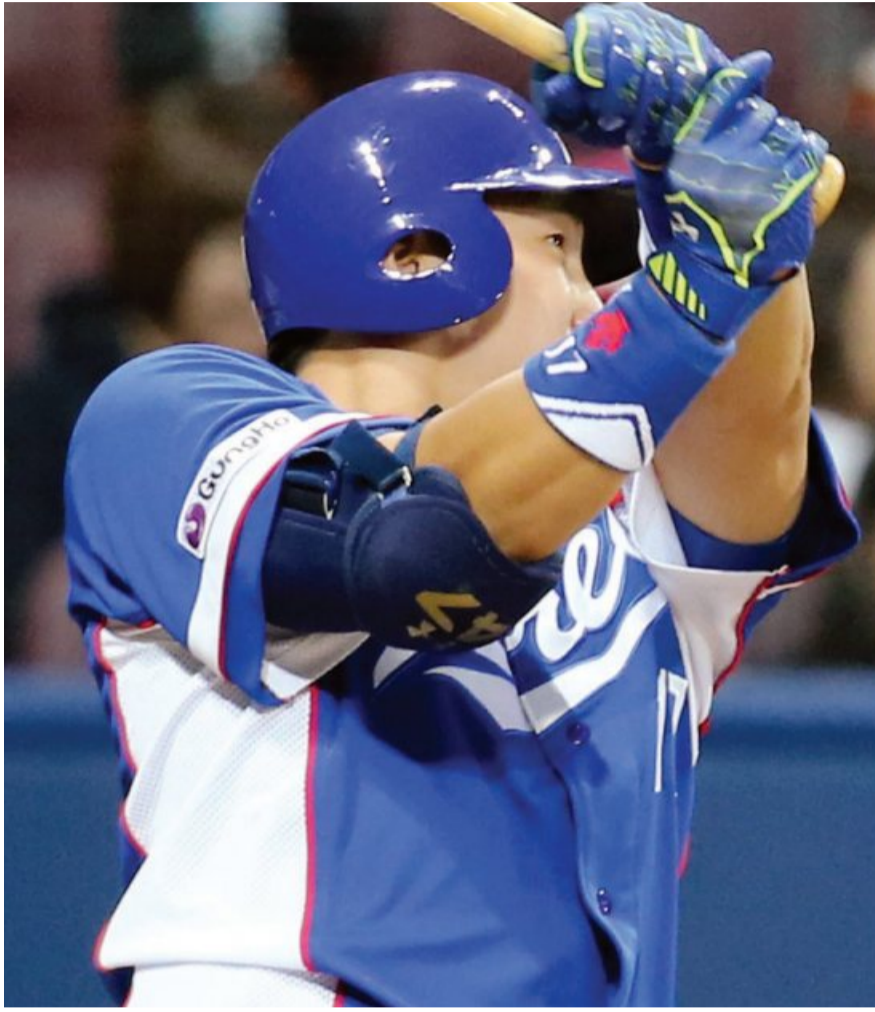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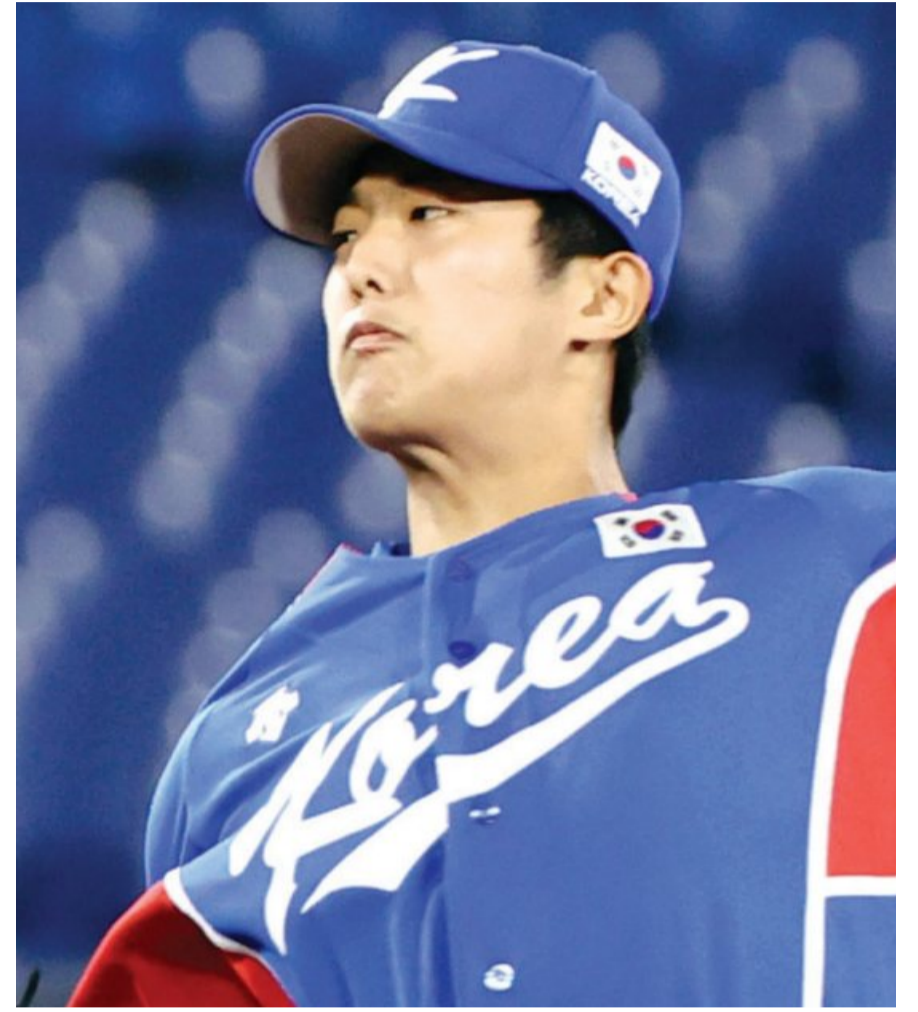
WBC 최종 30인, KIA 양현종·나성범·이의리 포함



양현종



나성범



이의리

감독 이강철, 미국 메이저리거 에드먼·김하성·최지만 포함 2월 미국서 훈련 ... 일본 도쿄서 3월 9~13일 본선 1라운드

KIA 타이거즈의 산-구 에이스 이의리와 양현종이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 나선다. KIA 타선의 핵심 나성범도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4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WBC 대표팀 30인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이 이끌게 된 대표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빅리거 내야'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한국계 2루수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유격수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각각 내야를 구축한다.

에드먼은 2021년 MLB 각 부문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 내셔널리그(NL) 2루수 수상자다. WBC에 참가하는 선수는 부모 또는 조부모 혈통에 따라 출전국을 결정할 수 있다.

키움허어로즈를 거쳐 빅리그 무대로 향한 김하성도 2022시즌 골드글러브 NL 유격수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각각 수비의 '키스톤 콤비'가 구성됐다.

또 지난해 11월 팔꿈치 뼈조각 수술을 받았던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1루수 최지만도 30인에 포함됐다.

3명의 빅리거 외에 최정(SSG), 김혜성(키움), 오지환(LG), 박병호·강백호(이상 KT)가 내야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운드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구성됐다. 빅리그와 국제 대회 경험을 갖춘 '베테랑' KIA 양현종과 함께 SSG 랜더스의 김광현이 마운드 전면에 선다. 2020도쿄올림픽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이의리도 KBO의 경쟁한 선배들과 투수진을 이룬다.

또 김윤식·정우영·고우석(이상 LG 트윈스), 소형준·고영표(이상 KT 위즈), 구창모·이용찬(이상 NC 다이노스),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김원중·박세웅(이상 롯데 자이언츠), 박빈·정철원(이상 두산 베어스) 등 투수 15명이 대표팀에 승선했다.

2022시즌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키움 안우진은 학교 폭력 전력으로 앞서 예비명단에서 빠졌다.

'안방'은 양의지(두산)와 이지영(키움)으로 꾸렸다.

외야는 2022시즌 타격 5관왕이자 'MVP' 이정후를 중심으로 나성범(KIA), 김현수·박해민(이상 LG), 박건우(NC)로 구성됐다.

MLB 소속 총 3명과 KBO리그 소속 선수 27명 등 30명으로 최종명단이 구성됐고, 구단별로는 LG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KT가 4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KIA·키움·NC·두산이 3명, SSG·롯데가 2명이었다. 삼성에서는 1명, 한화는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지만

1라운드를 치른 뒤 조 2위 안에 진입하면 A조 상위 2개 팀과 도쿄돔에서 8강 경기를 한다.

4강전과 결승전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진행된다.

코치진은 이강철 감독을 필두로 김기태 타격코치, 김민호 3루·작전코치, 김민재 1루·수비코치, 진갑용 배터리코치, 정현욱 투수코치, 배영수 불펜코치, 심재학 퀄리티 컨트롤(QC)코치로 구성됐다.

WBC대표팀은 다음달 중순 미국 애리조나주 투슨 키노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소집 훈련을 한 뒤 일본 도쿄로 이동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본선 1라운드에 참가한다.

한국은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B조에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명단

외야수(5명)
이정후(키움) 김현수(LG) 박해민(LG) 나성범(KIA) 박건우(NC)

내야수(8명)
최정(SSG) 김혜성(키움) 오지환(LG) 박병호(KT) 강백호(KT) 김하성(샌디에이고)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최지만(피츠버그)

투수(15명)
우완투수: 고우석(LG) 정우영(LG) 고영표(KT) 소형준(KT) 이용찬(NC) 원태인(삼성) 김원중(롯데) 박세웅(롯데) 박빈(두산) 정철원(두산)
좌완투수: 김광현(SSG) 김윤식(LG) 양현종(KIA) 이의리(KIA) 구창모(NC)

포수(2명)
이지영(키움) 양의지(두산)

감독
이강철(KT)

코치(7명)
김기태(KT) 김민호(LG) 김민재(SSG) 진갑용(KIA) 정현욱(삼성) 배영수(롯데) 심재학(MBC SPORTS+ 해설위원)

자료: 한국야구위원회(KBO) 사진: 도곡동공식홈페이지 연합뉴스



손흥민은 왜 부진할까?

영국 언론들 원인 파악 나서 페리시치와 부조화·자신감 ↓

손흥민(31·토트넘)이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여 현재에서도 그 원인 파악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스포츠 전문지 3일(현지시간) 손흥민의 경기 지표를 분석하며 "손흥민이 토트넘 입단 후 최악의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득점이 저조한 이유로는 많은 경기 출전에 따른 부담,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와 불협화음, 자신감 하락에 따른 아쉬운 마무리 등을 꼽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 15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렸는데, 3골 모두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전에서 나온 것이다.

그 외 리그 다른 경기에선 골맛을 보지 못했다.

스카이스포츠는 "많은 경기 소화가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며 "손흥민은 여름에 한국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했고, 월드컵을 위해 뛰었다. 월드컵에선 얼굴 보호대를 쓰고 경기를 했다. 그는 너무 많은 축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소속팀에서 함께 뛰는 히사카와와 데얀 콜루 세브스키가 최근 부상에 시달리면서, 손흥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

매체는 그가 1일 에스턴 빌라(토트넘 0-2 패)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EPL 역대 최다 합작 골(43골) 기록을 세운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회 창출(90분당 1.11회), 경기당 드리블 횟수(0.81회)에서도 최근 7시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개인의 부진뿐 아니라 토트넘 전술 변화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시즌 합류한 윙백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일찍부터 나왔는데,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듯하다.

공격적인 성향의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으로 침투해 올라오면서 손흥민은 선호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올 시즌 골을 넣은 두 경기에선 페리시치와 함께 뛰지 않았다.

페리시치는 전임자인 세르히오 레길론과 비교해 90분당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가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흥민은 올 시즌 페널티 박스에서의 터치가 90분당 3.48회로 지난 시즌(4.68회)보다 줄었다. 역시 최근 7시즌 중 가장 수치가 낮다.

이 외에도 스포츠 전문지들은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양발을 잘 쓰는 선수로 유명하지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최고의 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르세유전에서(안과골절) 부상을 당한 뒤 어려움을 겪었고, 월드컵에서도 득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기량에 관한 논란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은 케인, 위고 요리스와 함께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며 "그들에 대해 의심하거나 논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남아 월드컵' 박항서·신태용·김판곤 감독 지략 대결

베트남·인니·말레이 4강 진출

'동남아의 월드컵'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에서 박항서 베트남 감독과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지략대결을 펼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6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젤

로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2022 AFF 미쓰비시컵 준결승 1차전을 치른다. 이어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장소를 옮겨 9일 오후 9시 30분 2차전을 치른다.

또 한 명의 한국인 사령탑인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는 이 대회 최다(6회) 우승팀인 태국과 격돌한다.

광주FC, 임대 공격수 이진희 완전 영입

이정호 감독에게 '있을 수 없는 장면'을 선물한 이진희(24·사진)가 완전한 광주FC 선수로 된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시즌 서울이랜드에서 1년간 임대로 합류한 공격수 이진희를 완전 영입했다"고 밝혔다.

186cm·78kg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춘 이진희는 연계 플레이와 헤더, 날카로운 마무리가 좋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또 적극적인 전방 압박, 투지와 헌신으로 팀 공격에 활로를 열어 주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지난 시즌 임대로 합류했던 이진희는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주인공이 됐다. 이진희는 시즌 1호골을 장식하는 등 첫 4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 우승 행보의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이진희는 시즌 막판 가장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37라운드 김포와의 홈경기다. 9월 3일, 이날 광주는 두 차례 골대 불운에 우는 등 힘든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0-1로 뒤진 후반 45분 이진희의 헤더로 승부를

완전히 돌린 광주는 이어 경기 종료 직전 나온 이진희의 헤더로 극적인 역전승을 장식했다.

승리를 하고도 늘 아쉬움을 말하며 이정호 감독을 웃게 한 장면. 이 감독은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자, 축구 인생 있을 수 없을 장면으로 '이진희의 헤더골'을 꼽았다. 광주팬들도 이진희의 이 골을 2022시즌 베스트골 1위로 선정했다.

지난 1년 15경기 6골 1도움을 기록한 이진희는 "광주에서 1년 동안 선수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커리어하이로 만들어준 팀과 동행을 이어갈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팀이 1부리그에 복귀했고, 더 높은 목표를 꿈꾸고 있다. 그에 맞는 선수가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동계 전훈을 통해 더 발전한 선수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진희